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

강철희** · 안성호*** · 김윤경****

요약

본 연구는 나눔의 꽃이라 여겨지는 유산기부에 초점을 두고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등과 같은 일상적 나눔의 행동이 유산기부 의향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적 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2011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이 활용되었다. 기부 및 자원봉사에의 참여 및 정기성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로 세분화된 나눔의 행동을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적 나눔행동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 관계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나눔행동이 결합적인 경우 그리고 정기적인 경우 유산기부의향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유산기부와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며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향후 유산기부자 개발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B00213)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chulheekang@yonsei.ac.k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chenghao.an@gmail.com)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blucyun1@daum.net)

주제어: 유산기부의향(Charitable bequest), 자선 행동, 기부, 자원봉사, 성향점수 추정
(Propensity Score Matching)

1. 서론

IMF 외환위기 이후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공의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복지 영역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장과 더불어 민간복지 영역의 확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 NPO 공동회의(2010)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법인은 2009년 현재 19,203개로 1991년에 비해 19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법인의 증가와 함께, 비영리 조직의 주요 재원의 하나인 민간 기부금의 규모 역시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2.9조원이던 전체 기부금 규모는 2008년 8.91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개인기부의 경우 1999년 8,500억 원에서 2008년에는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년 동안 그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국세청, 2009).

한편, 전반적인 기부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잠재적인 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부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는 2011년 현재 회원 60명을 모집하여, 총 100억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고액기부가 보편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기부자가 자산의 증여방법, 운영방법 등 장기간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기부하는 계획기부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계획기부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유산기부는 민간 복지 영역의 인프라를 보다 강건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편화되고 있거나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산기부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속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재정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 아닌 공익을 위한 개인 자산의 사회환원의 의미를 갖기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나눔 문화가 발달

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부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산기부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8년 이후 유산기부가 전체 기부금의 7~9%를 꾸준히 차지해 왔고, 2009년의 유산 기부액은 23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iving USA 2010). 호주의 경우도 비영리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24개의 재원 중 유산기부는 3번째로 중요한 재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의 단체에서는 유산기부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caife, 2010). 영국의 경우에도 2003년 유산 기부액이 14억 파운드에 달했는데, 이는 영국 전체 자선 영역 수입의 33%에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Legacy Foresight, 2009).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유산기부의 규모 추계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 어느 정도의 유산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故 박완서 작가의 서울대 유산기부, 故 법정 스님의 인세 기부 등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사례를 통해 유산기부가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유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적지 않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 대상 고객과 국내 주요 재단 및 모금단체, 대학의 고액기부자들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향후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 재단, 2010).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빙 코리아 2010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2.2%가 유산기부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비슷한 방식의 나사렛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대상자 534명 중 42%가 유산을 기부할 뜻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몇몇 자선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기부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 이별학교’, 월드비전의 유산기부 상품 등인데,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한국 사회에 유산기부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관련 기부 상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유산기부의향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강철희 외, 2009; 이은화, 2010)와 유산기부자의 기부결정과정 등에 대한 질적 연구(이준우·이현아, 2010) 등 일부 연구가 존재는 하나, 일반 시민을 대

상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의식과 생각 등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대한 영향 관계 등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연구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산기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강철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나눔행동에 관여하는 시민들의 유산기부에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어떤 형태의 나눔행동인지에 따라서, 즉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행동의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기적인 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아울러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결합적 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차원에서 각각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심에서 6가지 형태의 나눔행동을 구분해 보고, 이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을 성향점수매칭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시민들의 유산기부의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등과 같은 나눔행동의 유산기부의향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진 나눔과 관련 연구들 중 가장 큰 규모에서 구축된 공공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기에, 대표성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분석결과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보다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서 기부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일상적 나눔행동을 통해 이의 유산기부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모금 현장에서 유산기부를 향한 실제적인 개입 방향의 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산 기부에 대한 선행 논의 및 관련 연구 정리

1) 유산 기부(charitable bequest)

유산기부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그 정의와 특성을 논의한다. McGranahan(2000)은 유

산기부를 친분관계가 없는 수혜대상(unrelated beneficiaries)에게 자신의 유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이에 반해 전은경(2008)은 계획기부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기부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부형태의 하나로 유산기부의 개념을 이해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장 전통적이며 보편화 되어 있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서 유언을 통하여 사망 시점에 하는 기부라고 보다 간결하게 정의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11). 한편 Schervish와 Whitaker(2006)은 사후의 재산처리를 세금과 상속, 기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이때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아닌 사후재산의 처리는 유산기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유산기부는 사망 시점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계획을 통하여 개인적 친분이 없는 수혜자, 즉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산기부의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유산기부 고유의 속성들을 반영할 수 있기에,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산기부는 계획기부의 속성을 지닌다. 계획기부란 기부자가 기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하여 기부의 사용목적이나 시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기부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1). 즉 계획기부를 쉽게 정리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기부자가 기부의 사용 목적이나 시기를 통제하고, 기부를 통하여 세제감면, 연금지급보장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기부자의 자산 계획 속에서 기부계획을 갖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일부의 속성에서는 유산기부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유산기부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을 통해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계획기부 상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산기부는 구두의 유언이나 서면 유언장 방식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기부자가 번복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Sargeant와 Jay(2003)는 이를 거짓 서약자(Lying Pledgers)의 문제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작성한 경우보다 거짓서약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공증 등의 방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기부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1), 최초의 유산기부 서약이 유산기부를 반드시 확정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유산기부는 다른 기부 행동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보건복지

부, 2011), 사회복지조직 등의 비영리 조직에 있어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받지만(Rooney, et al; 2001; Bekkers, 2004; Clotfelter & Steuerle, 1981), 유산기부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기부의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2) 유산기부의 동기 및 관련요인: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을 중심으로

(1) 유산기부 동기

기부행동의 발생에 대한 이유는 대체로 직접적 편익의 이기적 동기(Andreoni, 1990)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Smith, Kehoe & Cremer, 1995) 등으로 설명된다. 유산기부 행동의 동기 또한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와 자산관리 및 세제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동기 등으로 나뉘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아름다운 재단, 2010).

먼저 이타적 동기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Chang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 유산 기부자들은 타인의 목표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이타주의적인 동기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의 연구에서 유산기부자들은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선 조직이 기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이는 유산기부자들이 자선기관의 효과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까지도 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타적 동기가 기부자의 신뢰나 기관과의 관계 등의 조건 속에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Ostrower(1995)의 연구에도 부유층 기부자들이 유사한 이유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자신의 부를 되돌려 주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Sargeant, Hilton, Wymer(2006) 또한 비영리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얻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한 기관들에 유산기부를 더 많이 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는 유사한 맥락의 작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부자의 만족감이나 재정적인 이익 등의 이기적인 동기 또한 유산기부 결정의 중

요 요인일 수 있다. Sargeant와 Hilton(2006)은 유산기부를 통하여 만족을 느끼거나 죄책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동인 즉, ‘개인적 행복감’의 추구를 유산기부의 핵심 동기의 하나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삶의 주기에 따라 경제적 안정감을 도모한 후에 자신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부를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의 확장 형태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동이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유발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즉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형태에서의 나눔행동이기에 이기주의적 동기로 설명된다(Krauser, 2007). 아울러서, Krauser(2007)는 기부자들이 긍정성 및 도덕성 그리고 재정관리의 효율성 등의 획득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이기적 동기의 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즉 유산기부는 자식들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도덕적 교육의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의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경향이 크기도 한데, 이런 경우 이기적 동기의 한 범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부유층이 재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의 상당부분을 유산기부를 통해 자선단체에 남기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oskin, 1976; Clotfelter, 1985; Havens & Schervish, 1999).

(2)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의 관계

유산기부는 시간과 물질을 타인을 위한 일에 기부하는 나눔 행동의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사후에 이행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나눔행동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일상적 나눔행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물질적 기부와 자신의 시간을 타인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유재윤, 2012). 일부연구에서는 현금 및 보시와 같은 종교적 기부 및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나눔행동을 논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나눔을 제외한 순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으로 일상적 나눔 행동을 살펴본다.

유산기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일상적 나눔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사후에 이행되는 행위의 특성상 실제 유산기부의 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잠재적 유산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많다. 그동안 이

루어진 연구를 보면,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의 관계에 대해 일부는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일부의 연구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Sergeant 등(2006)은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산기부 서약(pledge)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부자 집단에 비해 연평균 기부금액이 낮고, 기부를 하는 기관의 수도 더 낮다고 보고한다. Schervish 등(2006)은 미국의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유산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1992년과 2003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였는데, 일생 동안의 기부와 재산증여가 사후의 유산상속과 기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생전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유산을 기부하기보다는 상속하려 하고, 반대로 생전에 상속권자에게 재산이전을 어느 정도 해 놓을 경우 사후 유산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Joulfaian(2000)은 1987년과 1996년 소득세 납부에 관한 미국의 패널 자료를 토대로 부유층들의 기부행동을 분석했는데,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현재의 기부는 물론 유산기부 확률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전에 기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유산기부의 확률은 낮은 반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생전에 기부에 인색하더라도 유산기부 이행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전의 나눔행동의 적극성이 유산기부와 부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Flanagan(2000)은 일상적 나눔의 행동과 유산기부의 관계를 기부행동의 발전단계를 통하여 설명한다. 즉, 잠재기부자가 행사참여자, 수시참여자, 주유기부자로 발전하는데 그 최종단계가 계획기부자(유산기부자)라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기부행동이 점차 발전하여 유산기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유산기부에 관하여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몇몇 연구들이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의향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안효금(2006)은 직장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10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부행동을 분석하였는데, 기부에 대한 태도가 유산기부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부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산기부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은화(2010)는 722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유산기부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강철희 외(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산기부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기부경험률(72.3%)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강철희 외(2009)의 연구는 아름다운 재단의 2008년 『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산기부의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유산기부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기부실천이(72.1%)이 전체 응답자의 기부실천 정도(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Tobit Model을 통한 영향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의 기부수준이 유산기부의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이준우와 이현아(2010)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유산기부자들의 기부결정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유산기부자의 기부결정과정을 일상적 베풀, 인식확장, 결단과 시도, 만족과 재실천의 4단계로 설명한다. 즉, 어려서부터 부모나 주변인들의 나눔실천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회활동경험을 통해 기부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산기부자의 유형을 적극적, 소극적, 의욕적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기부에 적극적이게 되는 것’을 유산기부의향의 맥락적 조건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외국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의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연구들이 실제 유산기부가 아닌 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산기부 의향을 조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혹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향후 나눔 행동과 유산기부에 대한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유산기부의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강철희 외(200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토빗 회귀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유산기부의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자원봉사와 유산기부의향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기부와 함께 나눔의 주요 형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기에, 유산기부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와 유산기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유산기부 관련요인

기존 연구들은 유산기부의 예측요인으로 과거의 일상적 나눔행동 경험 외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수준, 종교, 소득, 경제활동, 결혼여부, 행복감 등을 제시해 왔다. 이는 일반적 기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검토되는 요인들인데, 이를 통하여 유산기부가 일반적 기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좀 더 높은 유산기부의향을 갖는다는 연구(Sargeant H. & Wymer, 2006)도 있으나, 실제 유산기부의 이행에 있어서 절대 금액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리고 자산 대비 유산기부금액의 비율인 유산기부노력에서는 여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Eller, 2001). 한편 강철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유산기부의향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다.

연령의 경우, 유산기부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산기부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argeant와 Hilton(2005)의 연구에서는 6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유산기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Krauser(2007)의 연구에서도 40~50대의 연령대가 20~30대보다 유산기부 서약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한편, 일상적 기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65세까지는 연령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그 이후는 감소하거나(Danko & Stanley, 1986), 중년층이 젊은층과 노년층에 비해 평균 기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Borski & Bamacki, 1961) 이는 사후에 이행되는 유산기부와 일상적 나눔행동의 구별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산기부는 가족에 대한 상속의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기에, 기부자의 결혼 상태는 유산기부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유산기부의향을 가지고 있으며(Chang et al, 1999), 기혼자의 경우 유산기부 서약을 했다가 번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rgeant & Jay, 2003). 이밖에도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유산기부의 가능성이 낮으며(Barthhold & Plotnick, 1984),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와 유산기부 금액이 반비례하는 결과가 존재함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Sargeant & Jay, 2003; McGranahan, 2000).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부 연구에서 기부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하는데, 유산기부의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Feldstein & Clotfelter, 1976; 전은경, 2008).

행복감의 경우 또한 기부의 내적 동기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Sargeant와 Hilton(2005)은 만족감과 즐거움은 유산기부의 동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Bekker(2004)는 행복한 사람이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보다 높다고 보고한다. 아울러서 유산기부의 경우도 이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유산기부의 가능성이 증가됨을 보고하는 연구들(Chang et al, 1999; Havens & Schervish, 1999)이 있는 반면,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보고하는 연구들(Sargeant & Hilton, 2005; Hrungrung, 2004, 강철희 외, 2009)도 다수 존재한다. 소득수준의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고소득 전문직이 단순 노동자에 비하여 유산기부 의향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McGranahan, 2000).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유산기부와 관련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유산기부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자선 행동의 경험, 즉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과 유산기부의향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 등과 같은 일상적 나눔행동이 유산기부의향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실험적 상황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 모형과 같이 기부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유산기부의향 차이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초기값의 차이를 통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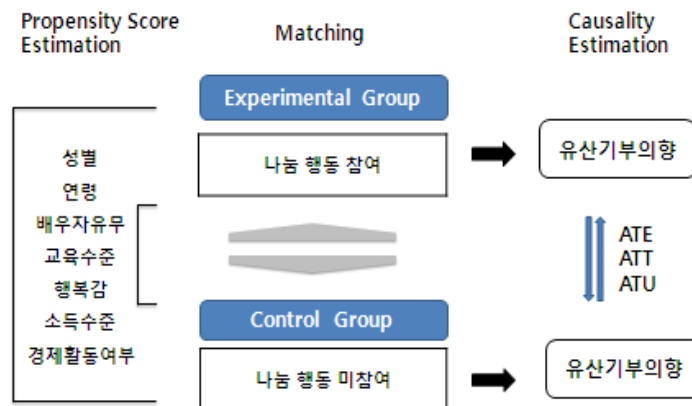
기 어렵다. 또한 난선택화(randomization)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Rubin(1974)과 Rosenbaum & Rubin (1983)이 제시한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의 분석을 사용하여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의향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성향점수매칭(PSM)은 본 연구와 같이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실험연구 세팅을 구축해서 실험 연구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연구 모형의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독립변수 요인인 일상적 나눔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6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부참여, 자원봉사 참여,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 정기기부 참여, 정기 자원봉사 참여, 정기 기부와 정기 자원봉사 모두 참여 등 총 6개의 관찰된 실험집단을 구성한다. 이때,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행동을 측정하고, 종속변수인 유산기부의향은 조사 시점 당시의 대상자의 의향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의 요건인 원인과 결과 및 변수 간의 선후관계를 충족시킨다.

[그림 1] 연구 모형



※ 나눔 행동 참여 : 본 연구는 총 6가지 나눔 행동 유형을(기부참여, 자원봉사 참여,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 정기기부 참여, 정기 자원봉사 참여, 정기 기부와 정기 자원봉사 모두 참여) 구분하여 각각의 PSM 모형을 분석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설정된 통제변수들을 통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성향점수를 토대로 여섯 쌍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재구성한다. 성향점수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은 집단의 재구성에 있어 제 3변수의 영향을 통제한다. 즉, 나눔행동 경험이 있는 실험집단의 개인들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행복감,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의 성향점수가 비슷한 나눔행동 무경험자를 찾아 가상의 비교그룹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처치그룹(실험집단)에 속한 개인과 비교그룹(통제집단)에서 매칭된 개인의 성과차이의 평균인 ATT(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중심으로 처치효과(일상적 나눔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PSM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할 때에 안정적인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자료가 필요하다. 201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는 시민 38,01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자료로써, 본 연구에서와 같은 분석을 위해 매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측정 및 관련 정책 및 연구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총 10개 부문(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에 대하여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는 5개 부문(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 33,325명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면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변수에 대한 설명: 개념과 측정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유산기부 의향’이다. 유산기부의 의향은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실 의사가 있습니까?’의 형태로 질문되었고, 이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측정되었다.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본 연구의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과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나누는 독립변수는 ‘기부참여’와 ‘자원봉사참여’, 그리고 정기성 여부를 토대로 구성된다. 기부참여 여부는 지난 1년 동안(2010. 7. 15 ~ 2011. 7. 14)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 있는가에 대해 ‘있다’와 ‘없다’의 이분형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정기적 기부 여부는 지난 1년 동안(2010. 7. 15 ~ 2011. 7. 14) 주기적으로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현금기부와 물품기부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는데 최종분석에서는 두 개 중 하나라도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정기기부자로 분류한다. 자원봉사 참여행동은 여러 연구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자원봉사, 친족에 대한 도움 등 광범위하게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Schervish, P. G., 1993), 종교적 자원봉사와 자선적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향도 있다(강철희, 2004).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 총 여섯 가지¹⁾로 구성하여 지난 1년 동안의(2010. 7. 15. ~ 2011. 7. 14.) 자원봉사 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정기적 자원봉사 여부는 지난 1년 동안(2010. 7. 15 ~ 2011. 7. 14)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측정되었다.

(2) 통제변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등과 같은 일상적 나눔행동이 유산기부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유산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연구 분석방법인 PSM에 따라 집

1) 자원봉사의 영역은 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방과 후 교실 등) ②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청소, 방범활동 등) ③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④ 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⑤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해외구호 포함) ⑥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관공서 업무지원, 무료상담 등)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단을 구성하는 성향점수 추정에 활용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유산 기부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던 특성들(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참여 상태,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행복감)을 통제변수로 선택해서 집단을 구성하는 성향점수의 추정에 활용한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값을 가지며, 여성은 0, 남성은 1로 코딩한다. 연령은 생년월일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연령을 측정한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상태의 질문에 대하여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등 4가지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 이혼)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교육수준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교육의 이수를 기준으로 중졸이하(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범주로 측정된다.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변수를 활용한다. 통계청에서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 정도에 대해 3점 척도(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삶의 만족도를 행복감의 대리변수로 간주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수준은 지난 1년 동안(2010.7.15. ~ 2011.7.14.)의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총 8개의 구간으로(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700만원, 700만원 이상)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등간척도로 활용한다. 경제활동여부는 지난 1주일 동안(2011.7.8. ~ 2011.7.14.)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적 있는지를 조사하여 측정된다. 이때, 일시적인 병, 사고, 육아,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 휴직인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 여부를 보다 엄격히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을 구축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연구모형의 구성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유산기부의향	없음=0, 있음=1
독립변수	기부참여	미참여=0, 기부만 참여=1
	기부정기성	정기참여하지 않음=0, 기부만 정기참여=1
	자원봉사 참여	미참여=0, 자원봉사만 참여=1
	자원봉사정기성	정기참여하지 않음=0, 자원봉사정기참여=1
	기부&자원봉사참여	미참여&하나만 참여=0, 모두 참여=1
	기부&자원봉사정기성	미참여&비정기&하나만정기=0, 모두정기참여=1
통제변수	성별	여성=0, 남성=1
	연령	만 연령/10
	연령2	만 연령의 제곱/1000
	배우자유무	비혼=0, 배우자유=1
	교육수준	중졸이하=1, 고졸=2, 대졸이상=3
	행복감	현재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응답범주: 불만족=1, 보통=2, 만족=3
	소득수준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조사 응답범주: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2, 200~300만원=3, 300~400만원=4, 400~500만원=5, 500~600만원=6, 600~700만원=7, 700만원 이상=8
	경제활동참여상태	지난 일주일간 미취업=0, 취업=1

3) 분석방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이다. PSM은 각 개인이 실험집단에 속하는지 통제집단에 속하는지를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확률에 따라 예측한 후, 이를 통하여 가상 그룹(counter-factual group)을 구성한 후 평균 처리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민인식, 2010). 이러한 분석의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동질의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관찰된 집단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향을 추정한다. 예를 들면, 연구 모형의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기부참여 집단에 속할지, 미참여집단에 속할지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일상적 나눔행동의 추정에 있어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성향점수를 세밀한 매칭 방법을 통하여 가상의 두 집단으로 구성한다. 이때, 다양한 매칭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을 가진다. nearest neighbor matching은 실험집단에 속한 개인들과 성향 점수가 가장 가까운 개인들을 1:1로 찾아내어 매칭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이러한 매칭과정을 반복하여 개인 간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때 매칭되는 표본수가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k-nearest matching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집단에서 한 명이 아닌 성향점수가 가까운 K명을 선택하여 매칭시킨다. 그런데 이때 실험집단에 속한 개인의 성향점수와 가장 근접한 비교집단의 개인성향점수의 차이가 클 경우 두 집단의 동질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aliper matching은 개인 간 성향점수 차이(caliper)의 범위에 제한선(tolerance level)을 지정하여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Caliendo, M. & S. Kopeinig, 2008). 즉, 매칭되는 두 값의 차이가 범위 이내인 값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caliper matching의 경우에도 좀 더 엄격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칭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표본수가 줄어드는 단점을 갖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ehejia와 Wahba(2002)는 실험집단의 개인과 1:1 매칭이 아닌 복수의 매칭을 하여 표본수를 유지토록 하는 radius matching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정된 범위(caliper) 안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안정된 표본수를 확보하면서 매칭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량의 분산은 줄이지만 편의(bias)를 높이는 단점을 갖는다. 한편, kernel matching은 커널함수를 이용하여 비교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 대하여 실험집단의 개인과 성향점수가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고, 성향점수가 멀어질수록 낮은 가중치를 주어 전수를 매칭시킨다. 정리하면, PSM의 매칭 방법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을 갖는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ne-to-one matching, k-nearest matching, radius matching, kernel matching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나눔행동 참여에 의한 유산기부 의향의 차이를 매칭을 통해 구성된 두 집단의 ATT(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즉 일상적 나눔행동에 참여한 특정 개인(처치집단)과 성향점수가 가까운 비교집단 내 개인의 유산기부 의향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집단내 매칭된 모든 개인들의 유산기부

의향 차이의 평균을 통하여 일상적 나눔행동의 유산기부의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ATT는 완벽한 동질의 두 집단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선택 편이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TE(Average Treatment Effect)도 함께 제시한다.²⁾ ATT, ATE에 대한 매칭 추정량 표준오차는 bootstrap을 이용하며, bootstrap replication은 50회 실시한다.

4. 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 정리

유산기부의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전체 33,325명의 분석대상 중 유산기부의향이 있는 경우가 11,309명(33.9%), 없는 경우가 22,016명(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산기부 의향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N=33,325)

변 수		빈 도(명)	비 율(%)
유산기부의향	있음	11,309	33.9
	없음	22,016	66.1

다음으로 일상적 나눔행동을 구성하는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을 중심으로 한 행동 유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3]에서와 같다. 먼저 일반적인 참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19,98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기부에만 참여하는 경우는 9,028명으로 27.1%,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경우는

²⁾ ATT는 실험집단에 속한 개인과 비슷한 통제집단의 개인의 차이를 비교한 값이고, 역으로 ATU는 통제집단에 속한 개인과 비슷한 실험집단의 개인의 차이를 비교한 값이다. ATE는 ATT와 ATU의 가중 평균을 계산한 값으로 이를 통하여 불특정 개인에 대해 예측되는 처치효과를 보여준다. 만약 완벽한 동질의 두 집단이 구성된다면 ATT와 ATE의 값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ATE는 ATT 값과 집단구성에서 발생한 편이(selection bias)만큼의 차이가 나게 된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PSM 분석값인 ATT와 함께 ATE의 값을 추가로 제시한다.

1,537명으로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2,777명으로 시민 중 100명 중 8명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강철희·주명관, 2008; Menchik & Weisbrod, 1987).

[표 3]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N=33,325)

실험집단	변 수	빈 도(명)	비 율(%)
-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지 않음	19,983	60
Group1	기부에만 참여 경험 있음	9,028	27.1
Group2	자원봉사에만 참여 경험 있음	1,537	4.6
Group3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참여 경험 있음	2,777	8.3
합 계		33,325	100
-	기부나 자원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27,331	82
Group4	기부에만 정기적으로 참여	3,475	10.4
Group5	자원봉사에만 정기적으로 참여	1,540	4.6
Group6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정기적으로 참여	979	2.9
합 계		33,325	100

보다 적극적인 유형의 나눔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의 정기성에 대한 분석결과, 기부와 자원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27,331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행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기부의 경우가 3,475명(10.4%)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1,540명(4.6%),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979명(2.9%)인 것으로 나타났다.

PSM 분석의 성향추정에 사용된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4] 분석대상의 특성 (N=33,325명)

변 수	구 분	빈 도(명)	비 율(%)	변 수	구 분	빈 도(명)	비 율(%)	
성별	여성	17,733	53.2	취업 여부	미취업	13,220	39.7	
	남성	15,592	46.8		취업	20,105	60.3	
연령	20대 이하	4,362	1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6,307	18.9	
	30대	6,371	19.1		100~200만	7,860	23.6	
	40대	7,628	22.9		200~300만	7,599	22.8	
	50대	6,543	19.6		300~400만	4,913	14.7	
	60대	4,146	12.4		400~500만	3,211	9.6	
	70대 이상	4,275	12.8		500~600만	1,625	4.9	
	Mean/SD	48.5	16.1		600~700만	721	2.2	
결혼 상태	비혼, 이혼, 사별	10,188	30.6	구 분	700만원 이상	1,089	3.3	
	배우자유	23,137	69.4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교육 수준	중졸이하	9,984	30.0	행복감	1.92	0.71	1	3
	고졸	12,519	37.6					
	대졸이상	10,822	32.5					

성별의 경우 여성(53.2%)과 남성(46.8%)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40대(22.9%)와 50대(19.6%)가 가장 많았으며 분석대상 표본의 평균연령은 약 48세, 표준편차는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전체의 69.4%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졸업(37.6%)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32.5%)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의 경우, 분석 대상 중 60%가 현재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전체 8개의 구간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3.6%,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2.8%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시민이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의 평균값은 1.92, 표준편차는 0.71로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에서 행복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PSM 모형 분석 결과

(1) 성향점수 추정 : 로지스틱 회귀 분석

연구 방법에서 전술하였듯이 PSM 분석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동질의 집단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여섯 가지 형태의 일상적 나눔행동에 대한 참여 확률을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섯 가지 나눔행동 유형과 관련해서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logit regression model)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5]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5] 일상적 나눔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33,325)

변 수	(A)	(B)	(C)	(D)	(E)	(F)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성별(준거: 여)	.068*	-.263***	-.275***	-.092*	-.209***	-.318***
연령	.755***	-.090	1.505***	1.217***	.805***	1.766***
연령2	-.657***	-.139	-1.392***	-1.182***	-.831***	-1.614***
교육2 (준거: 중졸이하)	.365***	.270*	.570***	.614***	.319***	.675***
교육3 (준거: 중졸이하)	.882***	-.158	1.051***	1.145***	.177	1.231***
결혼상태 (준거: 비혼)	.268***	.053	.099	.054	.097	.054
취업여부	.727***	-.450***	.400***	.610***	-.190**	.399***
소득수준	.042***	.007	.136***	.155***	.050*	.142***
행복감	.256***	.107**	.363***	.250***	.198***	.400***
Log likelihood	-18024.958	-6058.820	-8764.4765	-10092.225	-6130.9149	-4060.924

***p<.001, **p<.01, *p<.05

주) (A) 기부만 참여, (B) 자원봉사만 참여, (C) 기부&자원봉사 모두 참여 (D) 기부만 정기적 참여 (E) 자원봉사만 정기적 참여 (F) 기부&자원봉사 모두 정기적 참여

분석 결과 6 가지 유형의 나눔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 연령2,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행복감 등의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눔 행동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수준과 행복감 역시 나눔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취업여부의 경우, 물질적 나눔인 기부는 경제활동을 할수록 참여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원봉사만 하는 경우는 취업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자원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의 경우 나눔행동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성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떠한 나눔 행동의 특성이 성별에 따른 영향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경우, 나눔행동과 다항(polynomial)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 추정에 있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과소한 변수를 투입하면 성향점수 추정의 정보가 부족해지고 반대로 과도한 변수를 투입하면 공통영역(common region)이 형성되는 표본수 확보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적정수의 설명변수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변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PSM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³⁾

(2) 일상적 나눔행동 유형과 유산기부의향의 관계 검증: PSM분석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추정된 각 개인의 성향점수에 따라 구성된 여섯 쌍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유산기부의향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여섯 가지 쌍에 대한 PSM 분석의 결과, 결론적으로 일상적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은 어떤 유형에서든 유산기부의향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산기부의 의향에서 통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 여섯 가지 매칭 방법 모두를 활용한 분석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하

³⁾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성향점수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빈도 분포를 확인한 결과, 동등한 성향점수의 개인들이 균형적으로 구성되었음이 6가지 모형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이를 통한 공통영역의 확보는(common support condition) PSM분석의 무선화(randomization) 가정을 충족시킨다.

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등의 일상적 나눔행동은 유산기부의향을 증가시키는 원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 행동과 자원봉사 행동에 있어 이들의 효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에만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산기부 의향이 8.5~8.8% 높았고,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9~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기부의 경우에는 약 16.3~17.3%,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약 9.3~10.4% 정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TT와 ATU의 가중 평균인 ATE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즉 유산기부 의향에 대한 영향력에서 기부의 경우 자원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전적인 나눔의 성향이 유산기부의향의 촉진에서 더 발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한 가지 형태의 일상적 나눔행동에만 참여하는 경우보다 두 가지 형태의 일상적 나눔행동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에 유산기부의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행동에의 단순 참여 분석에서는 기부에만 참여하는 경우 ATT는 .085~.087, 자원봉사에만 참여하는 경우의 처치효과는 0.049~.065의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참여하는 집단의 분석에서는 한 가지 형태의 나눔행동 참여에 비해 그 처치효과가 두 배 이상인 .201~.20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정기적 나눔행동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나 자원봉사 한 가지 행동의 참여보다 다양한 나눔행동에의 결합적 참여행동을 가질수록 유산기부의향의 증가가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나눔행동에의 단순 참여보다는 정기적인 참여가 유산기부의향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행동의 경우 기부에의 참여를 처치집단으로 할 때의 PSM분석 결과 ATT가 .085~.087이었고, 정기적인 기부인 경우 .163~.173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 행동의 경우에도 .049~.065에서 .093~.104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나눔행동에서 정기성이 갖는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서도 지

속되는데, 단순 참여일 때 ATT는 .201~.209이었으나 정기적 참여로 했을 때에는 .263~.267로 처치효과가 보다 더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에 있어 단순 참여보다는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유산기부의향의 증가 효과가 더욱 커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나눔행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향후 유산기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표 6] 기부 및 자원봉사와 유산기부 의향의 PSM 분석 결과

변 수	구 분	유산 기부 의향					
		One-to-One	K-nearest		Radius		Kernel
			Caliper =0.01	Caliper =0.05	Caliper =0.01	Caliper =0.05	Normal
기부 참여	ATT	0.087***	0.085***	0.085***	0.087***	0.087***	0.088***
	ATE	0.075***	0.093***	0.093***	0.092***	0.093***	0.093***
자원봉사 참여	ATT	0.063**	0.049**	0.049**	0.064***	0.065***	0.065***
	ATE	0.044**	0.053**	0.053**	0.054***	0.053***	0.053***
기부 & 자원봉사 참여	ATT	0.204***	0.202***	0.201***	0.209***	0.209***	0.209***
	ATE	0.163***	0.246***	0.257***	0.243***	0.256***	0.258***
정기적 기부	ATT	0.163***	0.168	0.169***	0.173***	0.172***	0.173***
	ATE	0.129***	0.191***	0.193***	0.192***	0.193***	0.189***
정기적 자원봉사	ATT	0.104***	0.093***	0.093***	0.101***	0.100***	0.100***
	ATE	0.065**	0.111***	0.113***	0.112***	0.113***	0.112***
정기적 기부 & 자원봉사	ATT	0.267***	0.264***	0.263***	0.264***	0.266***	0.266***
	ATE	0.197***	0.310***	0.324***	0.312***	0.324***	0.336***

***p<.001, **p<.01, *p<.05

주1) One-to-One matching에서는 without replacement 방법을 적용하였다.

주2) K-nearest matching에서는 K=5를 선택하였다.

주3) Kernel matching에서 커널함수는 표준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의 분석 결과들은 일상적 나눔행동을 행하는 경우 그 형태가 무엇이든 향후의 유산기부 의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산기부예의 의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상적 나눔 중 기부예의 참여 경향이 자원봉사예의 참여경향에 비해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아울러 일상적 나눔행동의 내용에서 기부나 자원봉사 한 가지만을 행하는 것보다는 결합적으로 나눔행동을 행하는 경우에 유산기부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나눔행동에서 정기적인 참여를 갖는 경우 유산기부의 의향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행동의 발전단계를 설명한 Flanagan(2000)의 이론, 즉 모든 형태의 나눔행동자는 잠재적인 행동을 하는 형태에서 행사참여자, 수시참여자로 그리고 다시 주요 나눔행동자로 발전되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과 일치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상적 나눔행동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노력은 향후의 나눔문화의 촉진, 더 나아가서는 유산기부와 같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나눔행동을 유발시키는 의미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의 일상적 나눔행동이 유산기부의향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둘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하여 나눔행동을 유형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6가지로 구분한 후,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PS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기부의향과 관련해서 향후에 유산의 일부라도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3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 조사 결과인 25.7%(2005), 19.2%(2007), 12.2%(2009)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향 점수 매칭 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의 결과,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일상적 나눔행동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유산기부의향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은 향후의 나눔에 대한 의지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적 나눔행동의 유형에 따라 유산기부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기부가 자원봉사보다는 보다 더 큰 유산기부의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나눔 형태의 유사성 효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즉 일상에서의 기부예의 선택행동은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부예에 대한 의지에 더욱 더 유사한 형태에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눔행동에의 단순 참여보다는 정기적인 참여가 유산기부의향 차이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의 나눔행동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록, 즉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눔행동을 행할수록 유산기부의향이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나눔행동에서 정기성과 같은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 나눔행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형태의 일상적 나눔행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결합시키는 형태에서 나눔행동을 행하는 경우 유산기부의 의향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적인 형태의 나눔행동을 지속하는 이들은 좀 더 먼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기부예에 대한 의지 혹은 그러한 계획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일반적인 기부행동과는 달리 이해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유산기부에 대한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실증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유산기부행동과 관련해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상적 나눔행동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즉 기부의 꽃이라 불리는 유산기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행해지는 일상적 나눔행동이 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냄으로써 그 관계와 실천적 의미 모두를 찾아내는 기여점을 지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자료와 보다 세밀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유산기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조사된 시민 33,32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들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극복하며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나눔행동의 유형에 따른 유산기부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잠재적 유산기부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잠재적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표적집단 구성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영리 기관의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 관리가 유산기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해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유산기부에 대한 후속연구의 시초적 연구로서 기능하고 동시에 관련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한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여점도 지닌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실제로 유산기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유산기부 의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유산기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실제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유산기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위한 이해의 초석을 구축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4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노력 하에 국내 최초로 계획기부 모형의 하나인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이 도입되는 등 이전의 일상적 나눔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는 계획기부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제도 발전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기부 의 한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 유산기부와 관련해서 객관적 지식을 축적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여점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모금의 실천 현장에서 그 꽃이 되는 잠재적 유산기부자를 발굴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심화시키고 그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다각적인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유산기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기부라는 자원개발에 있어 보

다 실제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 유산까지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며 사회 통합의 길이 나눔의 차원을 통해서도 마련되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철희, 이종은, 배민경 (2009).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5-32.
- 강철희, 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 민인식 (2010). 성향점수 매칭추정량을 이용한 자원봉사와 기부와의 인과관계 추정. 제 1회 서울시 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보건복지부 (2011).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 아름다운 재단 (2009).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 자료집.
- _____ (2010a). 기빙코리아 2010. 제 10회 국제 기부문화심포지엄 자료집.
- _____ (2010b).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안효금 (2006). 직장모금 캠페인 기부자들의 기부만족과 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윤 (2011). 친사회적 태도와 나눔 행동의 선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화 (2010). 민간사회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 한국비영리연구. 9(2), 61-102.
- 이준우, 이현아 (2010). 유산기부자의 기부경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49(2), 279-318.
- 전은경 (2008). 유산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기관 기부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NPO 공동회의 (2010).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 Alpizar, F., Carlsson, F., & Johansson-Stenman, O. (2008). Anonymity, Reciprocity, and Conformity: Evidence from Voluntary Contributions to a National Park in Costa 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5-6), 47-60.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77.
- Barthold, T., & Plotnick R. (1984). Estate taxation and other determinants of charitable bequest. *National Tax journal*, 37(2), 225-237.

- Bekkers, R.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h.D dissertation, Utrecht Univ.
- Boskin, M. J. (1976). *Taxation, Saving and the Rate of Interes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USA.
-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aliendo, M., & Kopeinig, S. (2008).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1), 31-72.
- Chang C. F., Okunade A. A. & Kumar, N. (1999). Motives Behind Charitable Bequests.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6*(4), 69-85.
- Clotfelter, C. T. (1985).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otfelter, C. T. & Steuerle, C. E. (1981). Charitable Contributions.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43-46.
- Danko, W. D. & Stanley, T. J. (1986). Identifying and Reaching the Donatio Prone Individual: A Nationwide Assessment.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2*(Fall/Winter), 117-122.
- Dehejia, R. H. & Wahba, S. (2002).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s for Non-experimental Causal Stud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1), 151-61.
- Eller, M. B. (2001). Charitable Bequests: Evidence from Federal Estate Tax Returns. *SOI Bulletin*, 174-190.
- Feldstein, M. & Clotfelter, C. (1976).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A Microeconomic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2), 1-26.
- Flanagan, J. (2000). *Successful Fundraising: A Complete Handbook for Volunteers and Professionals*. McGraw-Hill.
- Foundation, Giving USA (2010). Giving USA 2010 -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09.
- Havens, J. J. & Schervish, P. G. (1999) Millionaires and the Millennium: New Estimates of the Forthcoming Wealth Transfer and the Prospects for a Golden Age of Philanthropy. Center on Wealth and Philanthropy(formerly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Boston College. [http://www. bc. edu/cwp](http://www.bc.edu/cwp).
- Hrung, W. B. (2004). "After-Life Consumption and Charitable Giving"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3), 731-745.

- Joulfaian, D. (2006). Charitable Giving in Life and at Death.
- Krauser, E. (2007). Bequest Donors: Demographics and Motivations of Potential and Actual Donors: A Report Prepared for Campbell & Company.
- Legacy Foresight (2009). www.legacyforesight.co.kr
- McGranahan, L. M. (2000). Charity and the Bequest Motive: Evidence from Seventeenth-Century Wil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6), 1270-91.
- Menchik, P. L. & Weisbrod, B. A. (1987). Volunteer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2), 159-83.
- Ostrower, F. (1995) *Why the wealthy give: The culture of elite philanthro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oney, P. M., Steinberg, K. S. & Schervish, P. G.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51-68.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Rubin, D. B. (1974).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Treatments in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5), 688-701.
- Sargeant, A. & Jay, E. (2003). The Efficacy of Legacy Communications. charityfundraising.org.
- Sargeant, A. & Hilton, T. (2005). The Final Gift: Targeting the Potential Charity Leg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10*(1), 3-16.
- Sargeant, A., Hilton, T. & Wymer, W. (2006). Bequest Motives and Barriers to Giving: The Case of Direct Mail Donor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7*(1), 49-66.
- Scaife, W. A. (2010). Individuals in a Mass Market Environment: Australian Bequest Donors Seek Better Communication from Charities.
- Schervish, P. G., Havens, J. J., & Whitatker, A. K. (2006). Leaving a Legacy of Care. *Philanthropy*, 11-13.
- Smith, V. H., Kehoe, M. R. & M. E. Cremer. (1995).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1), 107-2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 Volunteering Behavior and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Analysi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Kang, Chul-hee* · An, Seong-ho** · Kim, Yoon-kyu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 volunteering behavior and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For the examination, this study used ‘2011 Korean National Social Survey’ that was randomly sampled from the population of Korean in 2011.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this study employed the method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that permits the comparison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s consist of six different combinations of philanthropic behaviors as follows: donating only; volunteering only; participating both; regular donating only; regular volunteering only; and doing both regularly.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types of philanthropic behavi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First, more active philanthropic behavior such as regular behavior causes higher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Second, those who participate in both philanthropic behaviors (combined behavior of donating and volunteering) have stronger effect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in comparison to participating only one philanthropic behavior (either donating or volunteering). Third, giving have relatively stronger relationship with charitable bequest

*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chulheekang@yonsei.ac.kr)

** Master D,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chenghao.an@gmail.com)

***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blueyun1@daum.net)

intention than volunteering.

Throughout more careful examin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from philanthropic behavior to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new understanding on the effect of daily philanthropic behavior on charitable bequest and practical implication to nurture charitable bequest. Indeed,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 knowledg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charitable bequest.

Key Words: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giving, volunteering, PSM

◆ 2012.07.06. 접수 / 2012.08.29. 1차 수정 / 2012.09.11. 게재 확정